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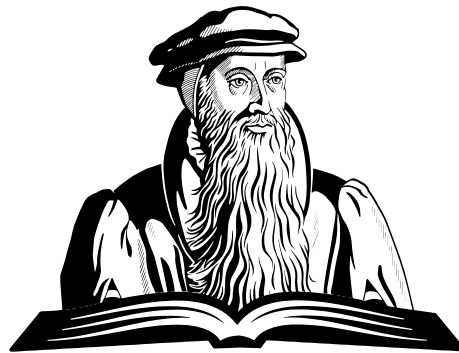
---

#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

## 강의 2: 창조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http://www.freechurchcontinuing.org)

# 학습단계

##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 구약 강의들

1. 소개
-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 강의 2

## 창조

### 강의 주제:

창조의 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의 기초를 마련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 본문: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스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1:16-17).

## 강의 스크립트 2

여러분이 건물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튼튼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건물이 크면 클수록 기초는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성경의 첫부분은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남은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처음 몇장에 있는 신학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처음 몇 장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나오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은 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첫번째 책인 창세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창세기의 신학은 나머지 성경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엮어져 있습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창세기 1, 2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텐데 구속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궁극적인 종착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창세기 1:1을 펴시면 성경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번째 강의에서 보았듯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책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지 하나님이 오랜 시간동안 존재했고 미래에도 무한히 존재하실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실제로 시간 밖에 존재하시며 공간 밖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했고, 하나님의 본체의 삼위께서는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비로소 사랑하는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은 영원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삼위일체의 위격들 사이에서 영원히 발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조의 사역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사역을 작정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소요리문답 제 7문항이 여기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뜻의 계획을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배웁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라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 분은 만물을 작정하십니다. 이 외에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께 다른 예를 더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0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도 배웁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도 봅니다. 창조의 모든 복잡한 것들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 말은 결국 삼위일체는 근본적인 교리이며, 실천적인 결과를 동반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보다 더 실천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 삼위일체께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부께 기도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자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삼위일체 교리는 신약성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리가 창세기의 첫부분을 포함해서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신약성경에서 이에 대한 보다 충만하고 분명한 계시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6에 사용되는 대명사들을 보는 것은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복수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대명사는 창세기 1장의 첫 세 절 말씀에서도 이미 나타납니다. 1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2절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3절에 보면 성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물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옳은 일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신약성경은 이 창세기 1장의 처음 몇구절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빛을 던져 줍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구절들이 창세기1:1과 얼마나 유사한지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창세기의 처음 몇구절 안에 위치시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주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펼치시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명령하심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막 4:39)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창조자 곧 바람과 파도를 명령만으로 존재하게 하신 창조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이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하여 확증합니다. 그에게서 창조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1:16,17). 이 본문은 대부분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그

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이전에 존재하셨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그 분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분, 곧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셨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그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훗날 성육신을 통하여 직접 들어오실 그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강의 마지막에 보게 되겠지만, 이 성육신은 이 세상을 구속하고 또 처음 시작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곧 그 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계시하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남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속에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창세기1장은 역사, 곧 성경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남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있어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그 분의 말씀과 행동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편 33:6,9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그리스도의 창조사역에 대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질 곧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창조와 더불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장기계획에 따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셨고, 들의 백합화와 꽃들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다른 것들도 만드셨습니다. 그 분은 창세로부터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는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그것들이 들에 옷을 입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피조된 세계 속에서 이 특정한 것들에 대한 교훈을 그때에야 발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셨고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것들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일반적인 6일 동안 만드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104편에서 이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6일동안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이라는 말은 저녁과 아침으로 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제한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날”은 넷째날에도 사용되었는데 태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날”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 단어는 순서를 의미하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첫째, 둘째, 셋째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날입니다.

복수로 표현된 “날들” 곧 창조의 날들도 구약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문자적인 의미의 여러 날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는 출애굽기20:11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있는데 사람이 일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날들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견해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첫번째 요점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계시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을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을 계시하셨을까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화룡점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모든 인간들은 본질적인 것들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26절)라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창세기1:26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므로,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혹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 중 한가지 이유는 죄가 들어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에 결국 타락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만약 창세기9:6을 보시면 주님께서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3:9을 펼치시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인데, 다른 어떤 이유보다 이것이 하나님과 닮은 것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11:7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피조물로서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도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형상은 영적인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잃어버렸으나 회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3장 에베소서4장, 로마서8장 등에서 이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의와 거룩은 상실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후의 강의를 통해서 더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육체와 영혼입니다. 영혼은 때로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2:7) 이것은 성경의 남은 다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위해 쌓아 나가는 또 하나의 벽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락 이후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육신과 영혼 곧 한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육신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유지한 채로 무덤에 놓여있지만,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도 배웠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육신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들의 물리적인 육신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 곧 한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다른 점은 사람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에 있어서의 구별과 역할 관계는 타락 이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성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 지위를 가졌습니다. 남자의 머리됨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신약성경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창조로 거슬러가서 이 원리에 호소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11:8,9과 디모데전서2:13에 이 내용이 잘 나와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결혼관계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시고자 하셨기에 결혼언약도 제정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것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곳에서 선지자들이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에도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까지 이 사실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랑을 위해서 장식된 신부의 모습입니다. 언약적 약속으로 맺어진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는 태초부터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부(region)입니다. 사실, 이것도 역시 중요한데 한 예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편으로 가서 시편 8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노래하라는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서 그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은 인간이 실제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이 인간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느끼신다면 또 이에 대해서 의문이 드신다면, 더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2:8, 9을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 발은 사람의 발을 말합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도 보시듯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니”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통치가 제공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밖에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계시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에게 영구적인 창조규례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창조시에 주어진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결혼입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2:23, 24에 있는 결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혼과 관련된 출산입니다. 자녀들을 임신하고 낳는 것입니다.

창세기1:28에서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번째, 창조규례는 노동 혹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2:15,19,20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노동은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을 하도록 사람을 만드셨고,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타락 이후 지금까지, 사람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하고, 다른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번째, 창조규례는 안식일 준수입니다. 창세기2:2,3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죄와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 세워진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십계명 중에 제4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으로 가면 일주일 가운데 하루의 안식일을 준수하고 지키는 이 도덕적 명령은 마지막 때까지 지속됩니다.

히브리서4:9에는, “그러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안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곳에서 “안식”으로 번역되는 단어들과는 다릅니다.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안식일 준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준수가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4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신약성경에서도, 매주의 안식일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매주 안식일을 지키라는 창조규례는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관통하여서 존재하며, 심지어는 천국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안식일이 없는 곳은, 오직 한 장소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의 남은 부분을 위한 구성요소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에 관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재하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걸으셨던 에덴동산에서 바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성막 혹은 훗날에는 성전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스가랴2:10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시고, 거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시대의 교회를 거쳐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21:3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언약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낮아질 것을 선택 하셨습니다.

“언약”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아이디어는 정말 중요한 성경교리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다룰 것입니다. 이 언약은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규정과 조건을 가지고 엄중한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반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종종 표식과 표지도 함께 주어집니다. 이 언약의 개념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첫번째 언약을 행위언약, 혹은 생명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독특한 언약인데, 이 때 아담은 타락 이전에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2:17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만약 그 열매를 먹을 경우에 아담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죽음의 저주를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아담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 언약에 약속이 어디에 있냐고 말입니다.

저주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약속의 예표고 성례며 눈에 보이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나무의 존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혹은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 나무가 성경 어디에 다시 나타나지는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 나무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세요. 바로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22:2) 이것은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같은 책의 앞부분인 요한계시록 2:7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자기 후손들의 대표인 아담과 자기 백성들의 대표인 그리스도 사이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15장과 로마서5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먼저 첫번째 아담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을 에덴동산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창조의 탁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연구의 남은 부분들을 위해서 창세기에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구성요소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요점에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성경의 남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초 위에서 얼마나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건물을 건축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속자와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은 태초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알린 바 되신 이” (벧전1:20)입니다. 그 분은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양” (계13:8)으로 묘사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세상은 의심할바 없이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 사역이 성취되는 무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천국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데려올 장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25:34). 여러분은 이것을 보셨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서 11:4은, 첫번째 순교자인 아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창조에 관한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주제는 신약성경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이것은 다시 창세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후4:6).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간을 생령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영은 신자들을 중생시키심으로, 인간에게 생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땅을 생각해 보세요. 첫번째 세상은, 처음 창조되었던 대로 계속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결코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전 우주는 마지막 때에 임할 장엄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실 그 마지막 때입니다. 피조물 혹은 창조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저주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롬8:21)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새 하늘과 새땅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은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탁월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지막을 위하여 최고의 것을 남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번째 강의에서 보았듯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비극과 그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